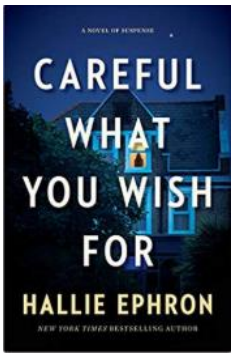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AREFUL WHAT YOU WISH FOR
가제 : 어젯밤 당신이 했던 말이 현실이 된다면
저자 : Hallie Ephro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9년 8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매력적인 인물들, 서스펜스 가득한 수사 과정을 통해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뛰어난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단서를 조금씩 흘리고, 의심을 증폭시키면서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혼란을 철저히 통제한 후 풀어진 매듭을 묶듯이 결말을 짓는 작가의 솜씨는 정리 전문가와 닮아 있다." - 「커커스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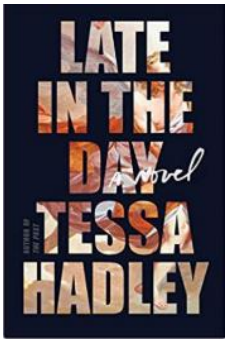
성격이 반대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끌린다고 하지만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집에서 부부로 살아간다면 '다름'에서 오는 매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버리고 치우고 정리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 에밀리와 매주 토요일마다 창고 세일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쓸어 모으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프랭크는 서로 다른 모습에 이끌려 결혼을 한다. 하지만 둘은 이런 서로의 다른 모습이 단순한 성향 차이라고 여기고 노력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점점 절감하기 시작한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부부가 함께 하는 일보다 각자 좋아하는 일에 따로 몰두하게 만든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우연히 찾아온다. 에밀리가 양말을 가지런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요령을 사진에 담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이다. 집에 직접 와서 정리하는 것 좀 도와 달라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지역 방송사의 아침 토크쇼에도 출연할 만큼 유명세를 타게 된 에밀리는 이 기회를 꽉 붙들어 보기로 결심한다. 친구와 함께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프랭크까지 적극 지지해준 덕분에 순풍에 돛 단 배처럼 순조롭게 출발한 에밀리의 사업은 그러나 곧 특이한 고객 둘이 한꺼번에 연락을 해오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8년간 초등학교 3학년 교사로 일한 에밀리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건 다 버려야 한다'는 유명한 정리 전문가 마리에 콘도의 말을 인생과 사업에 모두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 기준대로라면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시험 성적에 집중하는 학부모들과 학교 정책은 버

려야 할 1순위였고 평소에 쓸모 없는 것을 싹 치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온 에밀리로서는 고객이 잡동사니를 버리도록 돕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에밀리의 정리 비법 비디오 뒤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 그녀의 집에는 프랭크가 모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창고, 차고, 손님 방까지 전부 점령한 상황이며 에밀리는 자기 물건 외에 프랭크의 물건은 어쩌지 못했다. 이런 모순은 새로 시작한 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연히 옮겨갔다. 정리를 요청한 고객이 기혼자인 경우, 한 집에 사는 배우자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랭크와의 결혼 생활을 그나마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는 이 규칙이 뜻밖의 위기가 되고 만다. 신기하게도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고객이 나타난 것이 화근이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자신 몰래 큰 창고에 수집품을 모아뒀는데 정리를 좀 도와줬으면 한다는 고객과 먼저 만난 후, 에밀리는 퀸 뉴웰이라는 젊은 여성 고객의 집을 찾아간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갈 때라 주저하긴 했지만 퀸이 두 배 가까운 비용을 내겠다고 한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퀸은 곰 인형, CD, 옷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물건들을 모아둔 창고를 열어 보였고, 에밀리는 이 두 번째 고객과의 일도 별탈 없이 진행되리라 확신한다. 문제는 와인 한 잔 하고 가라는 퀸의 요청에 넘어가면서 시작된다. 고급 프로슈토 와인을 앞에 놓고 허물없이 대화를 시작한 두 사람의 수다는 퀸의 남편이 엄청난 수집광이며 경매에 나가 값비싼 물건을 있는대로 끌어 모으면서도 퀸 자신의 물건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푸념으로 이어진다. 아내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철저히 통제하려는 퀸 남편의 이야기에 분개한 에밀리는 한 잔이 두 잔, 석 잔이 된 와인의 술 기운에 취해 창고 세일에 미친 프랭크 때문에 미칠 노릇이라고 털어놓는다. 깔깔대며 한참을 떠들던 둘은 이 짜증나는 두 남편들만 없어지면 인생이 참 행복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다음 날이 되어도 퀸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경찰이 찾아와 전날 저녁의 일을 따져 묻자 에밀리는 취해서 떠들어댄 이 바람이 어쩌면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급기야 퀸까지 그 대화를 경찰에게 언급하며 에밀리가 자신을 돕는답시고 혹시 일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에밀리는 졸지에 살인 용의자가 될 위험에 처한다. 퀸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만났던 고객의 창고에서 퀸 남편의 사체가 발견되자 에밀리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을 노린, 철저히 계획된 소행임을 직감한다. 퀸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길에 생긴 수상한 접촉 사고, 퀸의 전남편도 수집광이었으며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것, 그리고 퀸의 집에 쌓여 있던 수집품이 그 전남편이 모은 물건들과 일치한다는 것까지, 에밀리는 거대한 덫으로 자신을 끌어당긴 단서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한다. 충격적인 반전까지 숨 막히게 휘몰아치는 영리한 스릴러소설이다.

<저자 소개>

할리 에프론(Hallie Ephro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Never Tell a Lie』, 『Come and Find Me』, 『There Was an Old Woman』 등을 쓴 소설가다. 「보스턴 글로브」에서 12년간 범죄 소설 리뷰어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까지 발표한 모든 소설이 메리 히긴스 클락 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LATE IN THE DAY
가제 : 그가 떠나고
저자 : Tessa Hadley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9년 1월 15일
분량 : 277 페이지
장르 : 현대 소설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 뉴욕타임스 북리뷰 에디터스 초이스
* "순식간에 지나가는 감정, 정확히 집어낼 수 없는 느낌, 아주 작은 계시를 우아하고 정확하게 집어내는 작가의 천재적인 능력을 느낄 수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
* "작가가 평범한 삶의 공기를 기적처럼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집약시킬 줄 아는 능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한 책" - 「워싱턴 포스트」

평온한 여름 저녁, 음악을 틀어 놓고 말없이 거실에서 쉬고 있던 알렉산더와 크리스틴의 나른한 시간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산산이 부서진다. 부부의 30년된 친구이자 크리스틴과는 어릴 때부터 단짝인 리디아는 순간 술에 취했나 싶은 착각이 들만큼 불확실한 발음으로 비보를 전한다. 남편 재커리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손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곧바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간 크리스틴은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절망에 무너진 리디아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사무실에 멀쩡히 앉아 다음 전시회에 관해 직원들과 논의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직원의 심폐소생술에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렸다는 사실은 리디아에게도, 알렉산더와 크리스틴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네 사람이 긴 세월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두 부부의 딸이 사이 좋게 함께 자라며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재커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딸 그레이스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빈 집에 리디아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알렉산더와 크리스틴은 리디아에게 당분간 함께 지내자고 제안한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실을 아직 인정할 용기가 없는 리디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재커리를 추억하며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던 세 사람의 동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괜찮은 척 하면서 지낸 세월들, 묻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묻고 또 묻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감정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크리스틴과 리디아처럼 알렉산더와 재커리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오랜 친구였다. 사실 알렉산더에게 처음 완전히 반한 사람은 리디아였다. 프랑스어 교수로 처음 만났을 당시 알렉산더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리디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흠모했다. 크리스틴을 데리고 그가 자주 찾는다는 술집에 일부러 가서 마주칠 타이밍을 기다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리디아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종지부를 찍고 난 후 알렉산

더는 크리스틴과 만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재커리와 호감을 주고 받았던 크리스틴 역시 알렉산더에게 더 마음이 기울고, 얼마 후 재커리가 리디아에게 푹 빠지면서 자연히 두 커플은 다소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알렉산더는 크리스틴과, 재커리는 리디아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우정이라는 탄탄하고 듣기 좋은 이름 아래 30여 년을 함께 하는 동안 네 사람의 관계에는 여러 차례 위기, 혹은 변화의 계기가 불쑥불쑥 나타났었다. 재커리가 결혼 후 미술관을 열기로 작정하고 낡은 교회 건물을 손보고 수리한 그 곳에 화가인 크리스틴의 작품이 걸리게 된 그 즈음,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배우자이자 친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늘어났다. 시인을 꿈꿨지만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한 알렉산더보다 재커리가 크리스틴의 그림 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운 건 미술관 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배려와 관심이 분명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틴이 당시 어렸던 딸 이소벨의 등하교를 도와줘야 할 시간에 마음 놓고 이젤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우미를 쓸 비용을 대준 사람도 재커리였다. 두 부부가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을 때도 아슬아슬한 순간이 결국 평생 가져가야 할 또 하나의 비밀을 낳았다. 직업상 관심사가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재커리와 크리스틴은 다른 것에 더 흥미를 보인 알렉산더와 리디아를 두고 따로 관광을 다니며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어느 순간 서로를 절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온 감정이 흘러나오고 만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신의 그림 작업에 거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알렉산더와의 결혼 생활은 크리스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냈고, 다정하고 배려심도 많지만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재커리가 유독 자신의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묘한 설렘과 만족감을 안겨 주었다. 그 날 두 사람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각자의 결혼 생활은 그대로 이어졌지만 그저 주어진 현실을 살아낸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네 사람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재커리를 잃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예기치 않게 촉발한 분노와 서글픔, 놓친 기회와 놓친 사랑을 향한 씁쓸함이 더 이상 숨길 의지마저 느끼지 않는 세 사람의 표정과 행동으로 마구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솔직하게, 용감하게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소설은 현재와 네 사람의 과거를 번갈아 오가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벌어지는 극심한 심정 변화가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닌, 그 뿌리가 너무도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보여준다. 가장 가까운 관계의 중심에 자리한 비밀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관계들 속에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과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우아하게 탐구한다.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능수능란하게 해부하여 유려한 문장에 담아낸 멋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테사 해들리(Tessa Hadley)는 가디언 데뷔 소설 상 후보에 오른 『ACCIDENTS IN THE HOME』와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THE MASTER BEDROOM』 등을 쓴 소설가다. 2016년에 소설 『THE PAST』 로 호손덴 상(Hawthornden Prize)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윈드햄 캠벨 소설 상도 수상했다. 현재 바스 스파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THE PARTING GLASS
가제 : 작별의 건배
저자 : Gina Marie Guadagnino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9년 3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19세기 뉴욕을 배경으로, 음모와 고백, 배신의 이야기가 꽉 채워진 에로틱한 소설. 계급과 정체성의 변동성을 탐구한 인상적인 데뷔작" - 「북리스트」**
* **"특권층의 호화로운 삶과 위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난한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이 처한 힘든 환경을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잘 짜인 구성으로 그린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1837년, 뉴욕 상류층들 사이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샬럿 월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하녀 메리는 굳게 닫힌 창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친다. 아침 일찍부터 아가씨의 머리를 빗고 드레스를 입혀주고 외출하거나 손님이 찾아오면 그에 맞는 옷차림으로 바꿔주는 일들은 다른 하녀들도 다 하는 일이지만 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창문을 열어 놓는 일은 벌써 1년째 메리의 특별한 임무가 되었다. 편히 쉬시라는 인사와 함께 샬럿의 방에서 물러나면, 그 창문으로 누가 기어들어오는지 메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저택의 마구간 지기, 조니가 훌쩍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메리가 몸 구석구석 치장해준 아가씨를 품 안에 넣는다는 사실을 메리는 두 사람이 처음 밀회를 나누던 날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끝나면, 메리는 조니가 모는 마차를 타고 '파이브 포인트'로 불리는 이민자들의 거리로 돌아간다. 조니는 메리의 하나뿐인 가족, 쌍둥이 오빠였고 둘은 가난으로 찌든 아일랜드에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다.
출간 후 '다운튼 애비와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이 결합된 소설'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소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아일랜드인 남매가 월든 가에 서로 남남인 척 각자의 일자리를 구하고 샬롯에게 각자 남다른 애정을 품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와 비뚤어진 욕망의 끝을 그린다. 남매가 걷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사망하자 극심한 가난에 찌들려 살던 메어와 세닌 남매는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든다는 기회의 땅 미국 행을 결심한다. 이미 터를 잡은 동향 사람들의 탄탄한 지원과 영민한 머리 덕분에 낯선 문화와 생활에 금세 적응한 두 사람은 고고한 뉴욕 상류층들 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출신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민자라고 하면 부도덕하고 못 믿을 부류로 일단 선을 그어버리는 분위기를 포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메어와 세닌은 피나는 연습으로 영국인 또는 스코틀랜드인 억양으로 고친 후 이름도 메리와 조니로 바꾼 후 월든 가에 무난히 취직한다. 물론 지어낸 경력과 위조된 추천서도 한몫을 한다. 메리는 친아버지처럼 돌봐주는 하숙집 주인이 여성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 내서 써준 추천서를 안고 샬럿과 처음 마주 앉았을 때부터 심장이 두근대는 것을 느꼈다. 미소와 함께

보조개가 푹 들어가는 샬럿의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에 사로잡힌 메리는 열심히 연습한대로 영국에서 귀족 집안의 하녀였던 엄마를 보며 일을 배웠다고 술술 이야기했고, 원하던 대로 아가씨를 바로 곁에서 모시는 전속 하녀 자리를 따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승마를 배우느라 마구간을 드나들던 샬럿이 하필 자신의 오빠, 조니와 눈이 맞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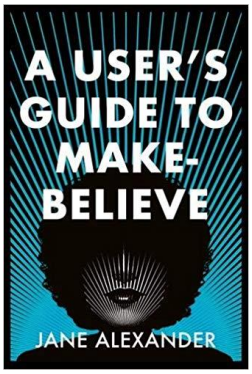
여동생이 다 아는 줄도 모른 채 조니는 샬럿과의 밀회를 즐겼고 메리가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자신을 노려보는지도 몰랐다. 세 사람의 기묘한 삼각관계는 그저 한바탕 열애로 끝날 줄 알았던 샬럿과 조니의 만남이 꽤 깊어지고 진지해지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질투심을 주체할 길이 없는 메리는 매일 밤, 하루 종일 턱 밑에 꽉 묶은 보닛과 단정한 옷차림을 다 벗어 던지고 온갖 하류층이 잡다하게 모여드는 바에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퍼 마시는 것으로 마음을 달랜다. 아일랜드 억양이나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말끝마다 아가씨, 마님, 주인님 같은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틈에서 메리는 접대부 리디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다친 마음을 감싸주는 리디에게 점점 더 많이 기대기 시작한다.

조니가 샬럿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그렇게 3년을 만나는 동안에도 메리는 언젠가 둘의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샬럿의 부모가 결혼 적령기가 된 딸에게 어울리는 번듯한 신랑감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하자 샬럿의 사랑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랑 없는 결혼,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허울뿐인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울먹이면서도 조니와 결혼까지 할 수는 없다는 갈등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흔들리던 샬럿의 마음은 조니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프로포즈를 하면서 다시 굳건해지고, 급기야 조니는 샬럿의 부모님 몰래 배를 타고 더블린으로 도망친다는 계획까지 세운다. 미국에 와서도 아일랜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갱단의 우두머리로 순박한 마구간 지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중생활을 해온 조니는 고향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세력이 충분하다고 믿었고, 메리에게도 도피 계획을 도와준다면 평생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더블린에서 샬럿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메리는 도저히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결국 조니의 무모한 욕망은 견고한 계급의 벽을 뚫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한다. 성 정체성과 인종, 계층에 관한 탐구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인간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지나 마리 구아다니노(Gina Marie Guadagnino)는 뉴욕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뉴스쿨에서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쳤다. ‘Whisper in the Shadows’ 등 세 편의 단편을 썼다.

제목 : A USER'S GUIDE TO MAKE-BELIEVE
가제 : 환상세계 설명서
저자 : Jane Alexander
출판사: Allison & Busby
발행일: 2020년 1월 2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SF



***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세계, 가상 현실 기술로 망가진 사람들과 사회 전체를 조종하려는 거대 기업의 비양심적인 열정을 고발하는 신작 스릴러**

한 때는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게임이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극심한 중독성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스크린 너머 게임 속 세상은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해지고 현실보다 그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게임에 심취해 자기 아이가 배를 곯고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몇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 중독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소수의 경우에 그칠까? 이 소설에는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가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실감나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던 특별한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환상의 세계'라는 노골적인 이름처럼, 이 프로그램을 이용자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아닌 고대 로마 자체에 가볼 수 있고 우주 밖으로 나가 태양계를 둘러볼 수도 있다. 심지어 기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특정한 렌즈, 옷, 장갑 같은 번잡스러운 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거의 '맨 몸 그대로' 이 놀라운 상상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거대 기술개발 업체 '이매진'이 개발한 이 '환상의 세계'는 이용자가 귀에 특수 제작된 작은 수신기만 착용하면 머릿속으로 원하는 모든 상황이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프로그램이다. 이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캐시는 출시 전 본사가 기술 팀 전체에 직접 테스트해볼 기회를 제공하자 주저 없이 참여했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니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 문제였다. 가상 현실과 현실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환상의 세계'를 진짜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뇌의 생물학적인 기능을 건드려야만 하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캐시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 이 프로그램에 깊이 중독된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 때부터 캐시의 현실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원래 '환상의 세계'는 한 번 접속하면 최대 2시간까지 가상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축구장 한복판에서 월드컵 출전 선수가 되어 공을 이리저리 굴리든, 날개를 달고, 또는 날개 없이 고도를 바꿔가며 날아가던 중이건 2시간이 지나면 이매진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기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과 그 2시간 동안 즐긴 환상적인 세상의 격차가 클수록 중독이라는 악순환이 찾아온다. 그런데 캐시의 경우, 2시간 이상 상상 속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밤새도록 '환상의 세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 날 출근하면 눈꺼풀 들 힘도 없을 만큼 녹초가 되면서도 퇴근하고 밤이 되면 여지없이 작은 수신기를 귀에 꽂고 밤새 가상 현실 속에서 보내는 나날이 한참 지속된 후에야 이매진은 캐시의 이상 증세를 포착한다. 결국 무단으로 기술을 조작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캐시는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랑했던 친구 알란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듯 보내지고 왜 그런 극단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의사가 이상하게 말을 아끼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날, 캐시는 자신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우연히 발견한다. 회사에서 쫓겨나던 당시 이매진 측에서는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제멋대로 조작한 간 큰 '위법자'가 캐시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루이스라는 이름의 그 남자 역시 '환상의 세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캐시의 예상대로, 루이스는 문제의 프로그램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이었지만 캐시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가상 현실에 푹 빠진 루이스는 2시간으로 제한된 접속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수신기를 조작해 연결을 끊는 이매진의 신호가 도달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덕분에 하루 종일 현실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대담한 시도를 알아챈 이매진은 캐시에게 했던 것처럼 법적 소송을 운운하며 무서운 협박을 가한 후 그가 어떤 식으로든 재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캐시처럼 '환상의 세계'에서 영구히 축출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가차 없이 쫓아냈던 이매진 측이 먼저 캐시에게 연락해 제발 돌아와달라고 설득하는 이상한 반전이 일어난 후 캐시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환상의 세계'에 관하여 자신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캐시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중독되는 과정에서 이매진에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자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곳곳에서 캐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이용자들과 마치 텔레파시라도 나누듯, 아주 특별한 연결이 형성된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캐시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던 회사의 노력이 자신의 이 독특한 기능을 파헤치고 이용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캐시는 알란이 갑자기 병신병자 취급을 받게 된 이유도 마침내 알아낸다. 이매진이 불특정 다수를 테스트 대상자로 몰래 지정했으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을 극비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었다. 알란이 이들이 지목한 비밀 테스트의 대상자였다는 것, 그리고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낸 캐시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매진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테스트로 인해 뇌 일부에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과연 캐시는 대기업의 교활한 술수에 맞서 돈을 벌고, 나아가 세상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는 섬뜩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독특한 소재로 자유의 가치를 색다르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인 알렉산더(Jane Alexander)는 에딘버러 대학교와 통신대학에서 문예창작 박사 과정을 마치고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워터 스톤 올해의 데뷔 소설'로 선정된 『THE LAST TREASURE HUNT』가 있다.

NON-FICTION

제목: THE ZEN MAMA
가제: 죄책감 없는 엄마 되기
저자: Sarah Ivens
출판사: Piatkus
발행일: 2020년 1월 30일
분량: 240 페이지
장르: 육아

*** 육아에 따르는 과도한 불안과 죄책감을 던지고 아이도 부모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정보서**

아이가 생기면 엄마는 무조건 아이에게 매진하고 모든 것을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원칙은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심지어 경제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집안의 경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매진하고, 아이를 키울 때는 일하는 엄마가 아닌 것처럼 매진해야 한다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기대가 엄마들을 짓누르는 것이다. 모처럼 친구들과 저녁 한끼, 술 한잔을 마시려고 마음먹고도 아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남편 등 아이를 봐주기로 한 식구가 불편한 내색을 비추면 약속을 미뤄버리는 엄마들이 허다한 것은 이런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애당초 채워질 수 없는 그 기대에 쫓기느라 '나'라는 존재를 챙길 여력은 하나도 남지 않고, 깊은 허무함과 우울로 가득하거나 이런 '희생'을 보상 받으려는 비정상적인 욕심, 집착으로 이어진다. 아이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악순환이다. 저자는 엄마들이 귀 기울일 필요 없는 사회의 기대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원칙과 기대를 토대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때 모두에게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원래 커다란 모험이라 할 수 있는 인생에 아이가 찾아왔다면, 그 모험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지나친 불안에 쓸데없이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용기 있는 아이, 자신감 넘치고 친절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저자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종(젠)의 원칙을 바탕으로 직접 고안한 육아법을 소개하고, 소셜 미디어의 멋지게 꾸며진 남의 삶이나 지금과 다른 시대를 살았던 선배 엄마들의 현실성 없는 조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과 아이, 가족들에게 꼭 맞는 육아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선종의 핵심 철학은 명상을 통해 평온함을 찾고 주변 세상의 불필요한 소음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 소음에 묻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현재에 집중하고 남의 시선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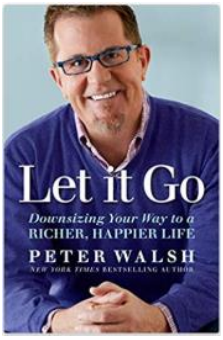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 어느 쪽인지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다. 저자는 많은 엄마들이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완벽하게 키우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은근한 요구가 부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 방향으로 질질 끌려 다닌다고 지적하고, 선종에서 강조하는 위와 같은 원칙을 육아에 적용하여 정신적인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강조한다. 많이 배우고 정보에 통달하지 않더라도 모든 엄마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직감을 더 충실히 따를 때 아이 역시 남들과 조금 달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은 물론 친구들을 위해 앞장서서 할 말은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란다. 그리고 겁나는 일이나 걱정이 너무 많아 안전한 곳 외에는 발도 들이지 않으려 하지 않고 뭐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서 세상을 마음껏 탐색하는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편안히 앉아 마음과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고 명상하면서 생각해볼 이야기와 다른 엄마들의 사연이 소개된다. 실용적인 정보와 귀중한 조언이 가득 담긴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새로운 정체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2. 죄책감은 놓자
3. 자유를 선택하라
4. 내 몸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5. 뇌에서 시작되는 모성 이해하기
6. 집을 평온한 곳으로 만들자
7. 내 식구 찾기
8. 나만의 기대 정하기
9. 비판하더라도 평화롭게
10. 행복으로 가는 나만의 길 찾기
맺음말 - 그럼 안녕히.

<저자 소개>

새라 이벤스(Sarah Ivens)는 「OK! Magazine」 편집자 겸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마리끌레르」, 「데일리 메일」, 「메일 온 선데이」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저서로는 『Forest Therapy』와 베스트셀러 『Modern Girl's Guide to Getting Hitched』가 있다.



제목 : LET IT GO
가제 : 다운사이징: 버리기의 기술
저자 : Peter Walsh
출판사: Rodale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1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실용

* **"격려가 담긴 강력한 방식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대한 목표와 열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안내하는 책" - 베스트셀러 『The Minimalist Home』의 저자 조슈아 베커**
* **"옷장과 집안, 인생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든 저자는 싹 치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정리된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 방송인 레이첼 레이(Rachael Ray)**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진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때가 찾아온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옮길 때, 결혼이나 이혼, 또는 다른 사람과 한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져서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할 때, 아이가 늘어나고 자라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우리는 기존에 모아두고 쌓아둔 물건들을 새로운 생활 공간에 맞는 규모로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느끼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버릴 물건과 간직할 물건을 냉정하게 분류하는 일이 너무나 괴로운 일로 여긴다는 사실이 차지한다.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수거함에 넣을 물건을 골라내는 과정은 지나온 삶에서 쌓인 각종 인간관계와 남들에게 감추려고 애써온 불안감과 똑바로 직면하게 하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당연하지만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혹은 지극히 단순하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강렬한 감정이 솟아나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물건을 다 끌어안고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하고 심신이 안정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해야 새로 맞이하는 삶과 새롭게 생긴 정체성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변화가 인생을 더 크게 살찌우는 토대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리정돈 전문가로 유명한 저자는 고향인 호주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과 집을 정리했던 기억과 그 동안 수천 명의 고객들과 만나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물건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사례를 지켜보고 도와준 경험을 결합하여 살림살이를 줄이는 이 부담스러운 작업을 좀 더 과감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마음 편히 해낼 수 있는 팁을 알려준다. 새로운 거처가 될 공간에 기존의 물건 중 어느 정도를 갖고 갈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기념품과 수집품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 버릴 물건을 선별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정서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방법과 함께 나의 소유물이 아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정리해야 할 때 형제자매 등 그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요령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더불어 저자는 쌓아두기만 한 물건을 말끔히 처분하면 예기치 못한 자유와 뜻밖의 기회가 새롭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과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분에 휩쓸려 정말 귀중한 물건을 버려버리면 어쩌나, 나중에 쓸 일이 있을 텐데 후회하면 어쩌지, 같은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과 함께 중요도를 떠나서 정리해야 할 물건 자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차분히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나를 비롯한 그 누구도 물건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물건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마음가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줄일 때 얻는 커다란 장점
  1장. 온 나라가 보물을 간직할 장소를 찾고 있다
  2장. 줄이면 찾아오는 뜻밖의 즐거움
2부. 줄이느라 생긴 스트레스를 힘으로 바꿔라
  3장. “뭔가 잃어버렸어!”라는 생각은 버려라
  4장. “시간이 없어요!”라는 장애에서 벗어나라
  5장. 가족 구성원간의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라
  6장. “심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생각도 버려라
3부. 이제는 줄여야 할 때
  7장. 우리 집 줄이기
  8장. 부모님 댁 정리하기

<저자 소개>

피터 월쉬(Peter Walsh)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It's All Too Much』와 『Enough Already!』 등을 쓴 저술가이자 정리정돈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오프라 매거진」에 분기별 칼럼을 쓰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Clean Sweep’, ‘Extreme Clutter’의 진행을 맡고 있다.

제목 : NOTHING IS LOST
가제 : 기억의 조각들
저자 : Gavanndra Hodge
출판사: Penguin UK (Michael Joseph)
발행일: 2020년 3월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여동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한 가족에 일어난 일들, 최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지만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

어떤 글도 두 번 정도 집중해서 읽으면 거의 다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여동생과 같은 방을 쓰고, 매일 같이 놀고 싸우고 깔깔대던 기억이 단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한 번 들은 노래는 가사도 음도 다 외워서 수십 년이 지나도 흥얼거릴 정도인데, 사진으로도 남아 있는 자신과 여동생의 모습을 아무리 응시해도 마치 다른 사람들의 사진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기억은 참 신기하고 오묘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살기 위해서, 최대한 멀쩡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마치 편집하듯 그 아픈 기억이 잘려 나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편집된 그 소중한 기억은 영영 사라지지 않고 다시 꺼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그 조각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가만히 기억의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 저자는 열네 살 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똑같이 까불던 동생이 바로 눈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날, 머릿속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기억의 편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두 딸아이가 노는 모습을 행복하게 지켜보다가 문득, 다섯 살 터울이던 동생 캔디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하지만 사진처럼 선명한 저자의 기억 저장고 속에는 캔디가 죽음을 맞이하던 모습과 장례식, 그 이후의 일들만 남아 있을 뿐 사랑스러운 두 딸의 모습처럼 분명 캔디와 함께 놀던 기억은 깡그리 지워져 있었다. 하나뿐인 동생과의 짧고 소중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큰 아쉬움을 느낀 저자는 지워진 시간을 다시 찾아간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이 기록에는 가족 전체를 덮쳐버린 슬픔과 변화, 트라우마, 여동생을 끔찍이 아꼈던 언니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다.
온 가족이 튀니지로 여름 휴가를 떠났던 1989년, 두 자매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해가 쨍쨍한 바닷가에서 마음껏 일광욕을 즐겼다. 하루 종일 해변에서 늘어지게 누워 있다가 오후가 되면 호텔로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밤 시간을 즐기는 날들이 이어졌다. 열네 살이라 키가 훌쩍 큰 저자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도회장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아빠와 어엿한 숙녀처럼 춤을 췄던 기억도 생생하다고 전한다. 그렇게 꿈처럼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엄마의 고함 소리에 부모님과 캔디가 함께 쓰던 방으로 달려간 저자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불이란 불은 모두 켜서 대낮처럼 밝은 방에서 캔디가 정신 나간 아이처럼 뛰어다니고 있었다. 숨이 막혀 숨이 넘어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방 한쪽 끝에서 끝까지, 넋이 나간 채로 달려가는 작은 몸을 아빠는 계속해서 붙들려고 애쓰면서 울고 있었다. 뛰어다니는 캔디의 입가에는 속에서 올라온 듯한 피가 흥건했다. 택시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캔디는 숨을 거두었다. 부모님은 캔디가 아주 희귀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몸 안의 장기 전체가 정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한꺼번에 기능을 멈추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뒤늦게 받아 들었다. 튀니지에 오기 전, 런던에서 이미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저자는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핑크색 우비를 입고 비행기에 오르던 모습을 떠올렸다. 예쁜 옷을 입고 기분이 좋아서 내내 환하게 웃고 있었던 그 순간에 몸속에 그런 무서운 것이 숨어 있었다니, 너무 이상했다. 하지만 캔디에 관한 기억은 시신이 런던으로 이송되어 장례를 치르던 것까지가 전부였다. 엄마는 종교에 심취하여 캔디가 머물고 있을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로 온 마음을 쏟는 것으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달랬고 아빠는 4년간 겨우 끊었던 마약과 알코올의 덫에 다시 발을 들였다. 그리고 저자는 충격으로 얼어버렸다. 캔디와 함께 한 시간들이 켜켜이 모인 기억이 한 꾸러미로 새로 묶여 더 이상 볼 수 없는 창고로 옮겨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도치 않게 잃어버린 동생의 기억을 천천히 찾아간다. 그러기 위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 절박함과 강인한 투지를 유려하게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모두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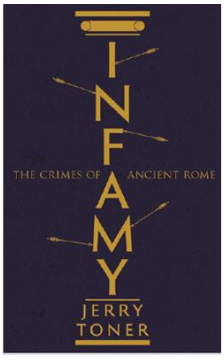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989년, 런던 그리고 튀니지
1. 2014년 런던
2. 1983년 런던
3. 2014년 런던
4. 1985년 런던
5. 2014년 런던
6.1984년, 웨스턴 수퍼메어
7. 2014년 요크쇼
8. 1989년 런던
9. 2014년 런던
(이하 생략, 총 35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가반드라 호지(Gavanndra Hodge)는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저술가이자 기자다. 「데일리 메일」, 「인디펜던트」 등에서 편집자로 일했으며 「Times LUXX」 매거진에서는 칼럼리스트로 일했다.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 INFAMY
가제 : 로마의 두 얼굴
저자 : Jerry Toner
출판사: Profile Books
발행일: 2019년 7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역사



*** 스페인 판매 완료**

*** 고대 로마의 전 역사를 통틀어 도덕과 범죄, 처벌에 관한 로마인들의 생각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총 정리한 역사서**

매년 무수한 관광객들이 찾는 로마는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웅장하고 멋진 건축물과 기발한 기술, 유럽 전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치한 위대한 국가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로마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검투사들 간의 싸움은 '피에 굶주린 인간들이 벌인 홀로코스트'이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피의 스포츠'라고 비난하는 학자들도 있다. 로마 역사를 연구해온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의 정복 전쟁이 '인간성과 정의를 끝없이 저버린 위반 행위'라고 묘사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로마 제국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악행이 얼마나 다양했고 얼마나 만연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권력자들의 부패는 제국 전체의 몰락을 일으킬 만큼 일상적이고 규모도 방대한 수준이었고 성 범죄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잔혹한 폭력과 부패, 비도덕적인 범죄가 들끓었던 제국이라는 비난과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에 축약된, 로마의 지배로 수세기 동안 이어진 평화와 수백 만 명의 인구가 침략과 죽음, 노예가 될 뻔한 처지를 면할 수 있었다는 찬사가 공존하는 로마는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황제가 대체로 할 일을 잘 해내고 사람들도 대부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질서 정연한 사회였을까?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 점령하고 어딜 가나 범죄가 횡행하며 법은 황제와 힘을 가진 자들의 이득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무참히 짓밟기 위해 존재한 곳이었을까? 저자는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로마의 다채로운 명성 중에 어두운 쪽, 가장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로마의 악행과 범죄의 역사에 주목한다. 티베리우스의 성 범죄, 네로의 절도 행각, 사람의 목숨을 건 게임, 무자비한 전쟁, 타락한 황제들까지 로마의 건국 신화부터 기독교 제국으로 변모한 시기까지 전 역사를 통틀어 탐정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로마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저자는 당시 제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토록 많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불행하게 살았는지 고민한다. 그리고 가해자, 목격자, 피해자 등 각기 다른 입장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성별과 사회적 지위, 연령 분포가 어떠했는지 정리해보고 이러한 차이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이나 다시 이어진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분석한다. 특히 저자는 긴 세월이 지난 현

재 우리의 관점이 아닌 당시 로마인들이 제국에서 일어난 범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중점을 둔다. 모두를 놀라게 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보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때 각각의 범죄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로 인식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종교 범죄, 성 범죄, 폭력 범죄나 반역 범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로마 사회를 구성한 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지도 설명한다. 로마의 영토가 확장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 된 이후 이러한 범죄 유형마다 대처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너무나 다양한 고대 로마의 범죄를 통해 법과 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시도하게 만드는 요소 혹은 계기, 지극히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이 그와 같은 대범한 행동에 빠지게 만든 절박함을 탐구하며 이 고대 제국의 볼썽 사나운 모습들에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에 시달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목차>

혐의
  법정에 선 로마
증거
  1장. 네로의 강도 행각과 기타 폭력 범죄
  2장. 소소한 도둑질부터 대규모 절도까지
  3장. 사기와 위조, 그리고 부패한 제국
  4장. 공포의 정치학
  5장. 신을 노린 범죄
  6장. 섹스, 음주, 폭식: 윤리에 반하는 범죄
  7장. 전쟁범죄
  8장. 개과천선? 범죄와 기독교 제국
선고
  로마: 유죄인가 무죄인가

<저자 소개>

제리 토너(Jerry Toner)는 캠브리지 대학교 '고전학 연구소'에서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마커스 시도니우스 팔스(Marcus Sidonius Falx)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How to Manage Your Slaves』와 『Release your Inner Roman』 등이 있다.

제목 : INHUMAN POWER
가제 : 자본주의의 신무기, 인공지능
저자 : Nick Dyer-Witheford, Atle Mikkola Kjøsen, James Steinhoff
출판사: Pluto Press
발행일: 2019년 6월 20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인문/사회/철학

* **"인공지능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Digital Demagogue』의 저자 크리스티안 퓨크스**
* **"현재의 AI 자본주의를 마르크스를 통해 해석한 인상적이고 선구적인 업적. 기계 학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공산주의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 『Platform Capitalism』의 저자 닉 스르니체크**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바짝 다가왔다. 대부분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로봇이나 기계 장치를 인공지능과 연결 짓지만, 그러한 '범용 인공지능'보다는 '좁은 인공지능', 즉 바둑을 두거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등의 한정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용도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간이 다루기에는 너무 무겁거나 위험한 물건을 대신 옮기는 기계,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피드, 비디오 게임, 표적마다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 광고, 심지어 은행 대출 신청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영역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에 끼칠 변화를 연구해온 세 명의 저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실존하는 인공지능 자본주의'라 명명한다. 197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 체제가 '실존하는 사회주의'로 불리우던 것을 활용한 표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난 희망이 동력이 되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불균등한 기술 배분이 이루어진 상황을 묘사한다. 더 나아가, 세 저자는 과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인공지능이 결합된 자본주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본과 기계가 대부분의 것을 좌우하는 경제 체제에서 노동자는 자신들의 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조차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소외된 존재가 된다는 것,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이로 인해 달라진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기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인간 고유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머신 러닝의 발전과 확산이 코 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예외적인 특징과 인적 노동력의 가치에 큰 변화 혹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자본에 반대하고 자본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기계 학습은 아직까지 좁은 분야에 국한되긴 하지만 인지와 추론이라는 인간의 기능에 기계가 성큼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 저자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잉여 가치와 노동, 일반적인 생산 조건, 계급 구성, 잉여 인구 등 마르크스주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현 주소와 앞으로 발생할 변화를 전망한다.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술, 혹은 사회적 과정을 확장하고 가속시켜야 한다는 촉진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의 생각과 달리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훨씬 더 복합적이라는 점, 지금까지 정의되고 대체로 인정 받은 자본주의의 미래 역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현재와 같은 궤도로 발전할 경우, 인공지능은 자본을 강화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무기가 될 것이며 이는 인간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전망한 인간 소외의 수준을 크게 뛰어 넘어 지구가 소멸하는 날까지 오직 월급만 바라며 노동하는 '새로운 종'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자본주의와 인공지능이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밝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책이다.

<목차>

머리말: AI와 자본
1. 인식의 수단
2. 사회적 공장의 자동화
3. 완벽한 기계, 인간 외의 노동력
결론: 공산주의와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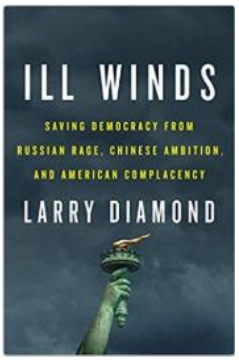
<저자 소개>

닉 다이어 위드포드(Nick Dyer-Witheford)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정보·미디어학 부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Cyber-Marx』와 공저자로 참여한 『Digital Play』, 『Games of Empire』 등이 있다.

아틀 미콜라 쇼센(Atle Mikkola Kjøsen)은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정보·미디어학 부교수를 맡고 있으며 인공지능, 막시스트 정치경제, 미디어 이론 등에 관한 연구를 이어 왔다.

제임스 스테인호프(James Steinhoff)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정보·미디어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막시즘, 트랜스휴머니즘, 인공지능의 철학적 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 : ILL WINDS
가제 : 민주주의는 없다
저자 : Larry Diamond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19년 6월 1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정치



* 중국어 번역 계약 체결
* "미국 국내와 해외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지구적인 공격의 원천과 영향을 밝히고 세밀함과 깊은 숙고, 희망을 담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한 책" - 전 미국 국가정보장, 『Facts and Fears』의 저자 제임스 클래퍼
* "교훈과 감명을 넘나들며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담은 강력한 메시지. 독재정권과의 싸움에 관해 설명하는 또 하나의 좋은 자료" - 「커커스 리뷰」

독재자, 독재 정권이라는 말은 무력을 동원해서 하루 아침에 평화롭던 나라를 뒤집고 권력을 휘어잡았던 과거의 무자비한 사례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은 형태로 또 다시 독재주의가 고개를 드는 양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처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었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이미 강력히 드러냈고, 미국 국민의 18 퍼센트가 군사 통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995년 같은 조사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응답자가 8 퍼센트였던 것과 대조되는 이 결과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단주의 정당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득표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평생 세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서구 사회의 막강한 힘을 누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퇴색되어 버린 미국의 현 상황이 부른 사태라고 설명한다. 서구의 개방성을 교묘하고 영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러시아의 전략과 세계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380억 달러를 해외 원조에 쏟아 붓고 있는 중국의 전략이 양국의 힘을 더욱 날카롭게 키울 때 미국은 부패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온갖 부패의 상징인 동시에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한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수장의 자리에 오른 것이 현재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이 책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가 세계 정세에 따라 크게 확장되거나 물러난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2006년 이후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도 다시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유럽, 아시아의 선진 민주국가들과 탄탄한 동맥을 유지하는 동시에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과거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지키고 널리 확산시킨 주된 동력이 되었다는 점,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터키, 필리핀 등 이들을 추종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더 거세질 경우 전 세계가 독재주의의 암흑기로 접어들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인터넷의 안전을 보장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제시한다. 특히 '도둑 정치'로 불리는, 권력자가 막대한 부를 독점하는 정치 체제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 이미 만연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보다 투명한 선거가 확립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오랜 연구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례들을 총망라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독재 또는 민주주의의 부활 그 사이에 놓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어주는 책이다.

<목차>

1. 머리말: 위기
2.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 이유
3. 민주주의의 행진과 후퇴
4. 독재주의의 유혹
5. 미국 민주주의의 하강
6. 러시아의 전지구적 공격
7. 중국의 은밀한 공격
8.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믿지 않을까?
9. 독재자가 처한 문제
10. 도둑 정치와의 싸움
11. 자유를 위한 외교정책
12.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안전 강화
13. 미국 민주주의의 부활
14. 결론: 자유의 새로운 탄생

<저자 소개>

래리 다이아몬드9Larry Diamond)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사회학 교수를 맡고 있다. 후버 연구소와 스탠퍼드 국제학 연구소 소속 선임 연구자로도 활동 중이다. 「Journal of Democracy」의 공동 편집자를 맡아 40여 권의 민주주의 관련 책을 편집했다. 저서로는 『The Spirit of Democracy』 등이 잇다.